

특집논문 비판지리학자 최병두, 비판적으로 읽기

다문화가정 사례를 통해 바라본 초국적 이주와 공간* 최병두의 이주 연구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pace from Multicultural Family Cases:
Choi Byung-Doo's Immigration Research

백일순**·고민경***

이 연구는 최병두의 이주 관련 연구를 정리해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최병두의 이주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주 연구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지구, 지방화 시대의 공간으로서 '다문화 공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천착하여 다문화 공간이 다양한 행위자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연결망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시도했고 최근에 이르러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이방인에 대해 조건 없이 환대해야 한다는 환대의 지리학을 논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최병두의 이주 연구의 특징을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재해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환대가 재구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지구-지방적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 공간의 가능성을 해석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이주, 다문화공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환대, 결혼이주여성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 제1저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선임연구원(thinki01@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lerielmk@gmail.com)

1. 서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낯선 이들과의 만남과 교류의 급증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혼종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낯선 이들과의 조우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다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두려움과 상호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문화 충돌로 인한 여러 사회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국적 이주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이론적 규범 및 정책적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문화주의의 이름으로 실시되는 많은 정책들은 이주자들을 수용하고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와 그들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특정한 문화를 전수시키고, 이주자들에게 다름이라는 낙인을 씌워 배제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자들의 인정의 정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와 지원 단체들은 안정적인 관계망을 이용하여 ‘관용’에 기반을 둔 가족 지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이주자 ‘자체’에 초점을 맞춘 온정주의적 정책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심보선, 2007).

따라서 그동안 한국 사회를 뒤덮었던 ‘다문화’라는 키워드는 규범적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현실을 단순하게 기술하는 것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와 불평등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인권, 이해와 배려,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다문화 사회라는 개념이 사회 문화적 다양성, 인종 및 민족적 차이들을 이해하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담론적으로 이주자들의 굴레를 만들어내고 고정화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홍태영, 2011).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병두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들고 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국적 이주자가 이방인이듯이, 그들에겐 낯선 곳에서 만나는 우리가 이

방인이다. 이주자들은 정착지에서 이방인으로 자신의 존재를 의심받고 인정받는 동시에 정착지와 원주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최병두(2018)가 밝혔듯이, 이방인은 초국적 이주자들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곳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고, 이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서 정착한다.

이주 과정부터 정착 및 적응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주자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부터 정착지를 연결하여 초국가적 공간을 형성하는 동시에 ‘여기’와 ‘저기’를 매개한다. 이러한 초국가적 공간의 구성자이자 여기와 저기의 관계를 매개하는 이주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기와 저기의 경계를 어떻게 가로지르며 허물 수 있는가, 즉 공간적 실천의 문제로 이해된다.

이 논문은 최병두의 이주 연구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고 그의 연구 관점을 한국 사회의 이주 현상에 대입해보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최병두의 이주 연구를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했다. 이주 연구를 시작한 초창기에 그는 주로 지구, 지방화 시대의 공간으로서 다문화 공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주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천착해 다문화 공간이 다양한 행위자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연결망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시도했고, 최근에 이르러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이방인에 대해 조건 없이 환대해야 한다는 환대의 지리학을 논하고 있다. 2011년에 출간한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2017년의 『번역과 동맹』, 2018년의 『초국적 이주와 환대의 지리학』에서 최병두가 저술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들을 정리, 요약¹⁾했다.

후반부는 최병두(2012)가 논의한 이주-공간 연구 중 인정과 투쟁의 장소로서의 다문화공간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결혼이주여성과 그

1) 이론의 전반적인 개괄은 최병두의 이주 연구 전반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 연구 후속 세대의 입장에서 그의 연구 업적을 기리고자 구성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녀들의 가정을 통해 적용해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정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가정은 한국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최초의 장소이자 그녀들의 전면적인 경험의 장소이다. 집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녀들은 가족들의 환대를 받지만, 그 환대는 가족으로 받아들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즉, 환대는 그녀들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을 전제로 한다. 가정은 온전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주여성들이 가족들과 끊임없는 투쟁과 타협을 하는 곳이며, 이 과정에서 그녀들은 자신들의 자원인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가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최병두가 제시한 이주-공간의 연계를 적용해보기에 좋은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의 마지막 부분은 최병두가 제시한 ‘환대의 윤리’에 관한 지리학적 함의를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으로 구성된다. 사례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필자들이 서울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강사 양성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이주여성 강사 40명과의 개별적으로 면접한 사례와 수업 참관을 통해 획득한 참여관찰 자료를 통해 수집했다. 아래의 본문은 이 중 분석의 결과를 잘 설명하는 4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그들의 내러티브를 따라 구성했다.

2. 다문화 공간에서 환대의 지리학까지: 최병두의 이주 연구 이론 리뷰

1) 인정과 재분배에 바탕을 둔 다문화 공간

최병두의 이주,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의 시작점은 꾸준히 연구 주제로 다루어왔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과 ‘다규모적 접근(multi-scalar approach)’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이주 연구는 최근 철학

및 사회과학에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 축적 기제 등과 비롯된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현재의 지구-지방화적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공간의 전유와 생산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공간적 전환이 이주 연구에 내포하는 바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행동이 사회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다양한 소재와 의미를 생산함으로써 형성된 물질적, 담론적 구조에 의해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최병두 외, 2011: 19). 다른 한편으로 중심-주변, 제1세계-제3세계 등으로 표현되는 공간적 표현들 속에 은폐되어 있는 공간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대안적인 사회공간적 윤리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전환이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한다(최병두 외, 2011: 20).

공간의 사회적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규모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다규모적 접근 방식은 공간적 전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동이 정치적·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역, 국가, 지구적 스케일들과 상호 작용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간주하고, 스케일 뛰어넘기(jumping scales)를 통해 다른 규모, 다른 지역의 개인들과 접촉하여 새로운 공간 조정(spatial fix)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각각의 스케일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한 개의 스케일 내에서 이주 현상을 분석해왔던 기존의 이주 연구들과는 달리, 그의 이주 연구의 중심에는 공간의 의미, 생성과 변형의 과정 등을 다규모적 접근을 통해 포착해내고자 했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최병두는 ‘다문화 공간(multicultural space)’를 제언하고 그동안 이주 연구에서 경시되어 왔던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다문화 공간을 정의내리고 이주 연구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 첫째, 다문화 공간은 지구, 지방적 차원에서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교류 및 혼재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현상을 담지한다… 둘째,

다문화 공간은 지구, 지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종적·문화적 교류와 혼합에 관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다... 셋째, 다문화 공간은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인정’을 전제로 한 규범적 윤리와 민주적 정치의 이상을 함의한다(최병두 외, 2011: 28).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가 이주 연구에서 중시한 공간적 전환들이 다문화 공간의 정의에 그대로 녹아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주자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변화들을 하나의 사회공간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국가, 지역의 제도나 법 등의 재설정을 야기함과 동시에 해당 사회가 공감하는 정치적·윤리적 합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문화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 담으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이에 대한 인정, 타자성에 대한 상호 존중, ‘인정을 위한 투쟁’은 현대 정치의 공통된 흐름으로 다문화 공간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의미한다. 능동적·실천적 다문화주의적 접근을 통해 단순한 포용이나 차이의 승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실천하고 고정된 질서에 도전해 생활 경험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최병두 외, 2011: 44). 이러한 차원에서 ‘인정의 공간(spaces of recognition)’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와 정체성이 그 자체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인정의 정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공적 및 사적 영역들 간의 경계 공간(liminal space)이 형성되고 국가와 제도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적 공간들이 나타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공간적 실천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병두는 인정과 정의의 실현과 불평등의 해소가 수동적으로 주어질 것이라 보지 않고, ‘끊임없는 실천적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병두 외, 2011: 48). 다시 말하자면, 인정의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공간적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스스로의 행위와 조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정책들이 ‘차이에 대한 인정’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재분배의 정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최병두, 2011: 51). 따라서 인정과 정의의 실현은 물질적 가치의 분배와 더불어 인정을 부정하는 자본과 권력의 사회적 작동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거꾸로 말하자면, 소득의 재분배, 노동 분업의 재편, 공공 서비스의 분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정을 위한 투쟁이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주 연구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병두는 미래의 한국 사회가 ‘타자’로 간주되는 외국인들과 ‘우리’ 사이의 상호 인정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공간’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비판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이주 공간의 재인식

최병두는 한국이 이주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진입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다루어지는 이주 연구들이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연구 주제의 전환점으로 삼았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가 주목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은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공간적 관계망을 중시하며,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이나 과정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최병두 외, 2017: 18).

최병두(2017: 28)는 기존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주 이론들이 복잡한 이주 현상을 뭉뚱그려 버려 이주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측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개념이 초공간적 관계성을 전제로 하여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영토성, 이동성 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세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공간적 특성을 극복하게 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초기 연구에서 그가 중시했던 ‘다문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자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일정한 장소와 공간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대를 통해 공간적 이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공간의 중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 연구 초기부터 그는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공간적 전환을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과 연결해 관계적 관점에서 공간성이 상이한 실천들과 이들 간 관계의 중첩, 접힘과 펼쳐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주 연구와 ANT의 접목은 관계 이론의 한계들을 보완하고 이주 연구의 공간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최병두는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는 근본주의를 부정하고 상호관계성을 강조하는 관계론적 존재론과 연구방법론으로서 ANT를 이주연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주 현상과 관련하여 인간과 비인간을 포괄하는 행위자 개념, 번역과 동맹의 개념, 초국적 이주에 대한 위상학적 접근과 네트워크 공간을 중심으로 관계이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ANT에서의 행위자는 인간과 사물의 이분법뿐만 아니라 행위와 구조, 미시와 거시, 사회와 자연 등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최병두 외, 2017). 즉, 어떤 행위자도 고립된 상태에서 행위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며 항상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 및 잠재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관계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해당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가 가정하는 네트워크는 위계, 구조, 체계, 지위 등이 아니며,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를 섬유-모양의 실이나 철사 같은, ‘리즘’의 형태로 인식된다.

행위자와 네트워크는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속적

으로 규정하고 재규정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으며 서로 의존한다. 이때 발생하는 새로운 결합체는 하나의 ‘아상블라주(assemblage)’라 하는데, 최병두는 초국적 이주노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행위자-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노동시장, 가정, 국가를 주요 아상블라주의 예로 들고, 이와 같은 아상블라주들이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이라 설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개인, 집단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주를 발생시키는 커다란 배경만을 다루었던 연구들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편 ANT에 다루는 공간의 개념은 위상학적·관계적 공간으로, 행위자와 네트워크의 개념과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행위자들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 유지,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멀고 가까움, 크고 작음, 안과 밖 등의 여러 공간적 사고들을 탈피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공간 구분들을 흐트러 놓는다. 따라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은 국지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 간의 분리 방식을 폐기하고 연속성을 강조한다(최병두, 2017: 51). 이처럼 이주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들은 공간을 수반하며, 공간은 부분적으로 물리적이지만 관계적으로 형성, 유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 연구의 관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ANT의 적극적인 해석을 수용했지만 해당 이론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았다. 최병두는 ANT 적용에 있어, 공간의 계층성이나 위계적 질서를 단순화시키거나 공간에 내재된 모순이나 중층성이 무시될 수 있으며,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됨으로써 단순한 공간적 메타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ANT의 한계는 연구방법론으로서 문화기술지 연구방법론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비인간행위자들의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혹은 그것을 인간의 선택 행위를 위한 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최병두는 ANT를 통해 하나의 관점으로서 포획되지 않는 것들, 드러난 현상들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잔여물, 보이지 않는 사실들에 대한 직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이용재, 2017). 또한 ANT가 이주 연구에 주는 함의에 대해 최병두는 이주 현상에 관여되는 모든 행위자의 능동성, 역동성, 적극성의 필요를 들고 있다. 그는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사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네트워크들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저항과 타협과 권력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의 적극적인 능동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방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본연적인 공간적 실천으로 연결시켜볼 수 있으며, 최병두의 최근 이주 연구와 직결되어 있는, 역동적인 현대의 공간을 전제로 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으로의 고민과도 맞물려 있다.

3) 다문화 사회의 윤리, 이방인의 권리, 현대의 지리

ANT를 통해 이주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최병두는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 다문화 사회에서의 불거지는 윤리적인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규범적·정책적 측면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단어에 대한 편견과 불신 등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라고 명명된 이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문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최병두는 관용, 인정, 시민성, 현대의 개념을 가져온다. 관용이나 인정은 이미 초기 이주 연구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던 개념들로, 타자에 대한 무시와 억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집단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재분배가 실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의 ‘인정’이라

는 개념은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과 국가 주권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병두 본인도 이 점에서 인정의 정치만으로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개념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인적·국지적 실천으로, 타자를 그 자체로서 증만하고 완전한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타자-지향적 윤리로서 외부에 속하는 것을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 허용, 초청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환대(hospitality)’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였다. 최병두(2018: 430)는 경계를 가로지르는 공간적 실천으로서 환대라는 개념이 이제까지 시행되었던 수많은 다문화정책 속에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궁극적으로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비전으로 ‘무조건적인 환대’를 제시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그가 다문화 사회의 근원적인 방향과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가져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지역 주민에서부터 한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주를 통해 야기되는 사회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의 부재, 타자와 그들의 문화와 일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과 학습의 기회 결핍, 인간 대 인간의 만남으로서 상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마주침의 정치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함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행위자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방인을 대하는 철학적·윤리적 바탕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병두가 말하는 ‘환대’는 나의 일상생활 공간에 찾아온 타자에 대한 상호 호혜·긍정적 태도나 행동이며,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나 국민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최병두, 2018: 471). 그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는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심 개념으로 그 어떤 기대나 초대에 의하

지 않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예견할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낯선 방문자에게도 조건 없이 개방하는 환대를 의미한다.

타자에 대한 조건 없는 받아들임은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이기 에 두 가지 측면에서 공간적 실천이라 간주된다. 첫째 환대는 경계와 문지방 넘어가기를 포함한다. 구조적으로 환대는 안과 밖을 구분하고 그 구분선을 전제로 한다. 이방인의 존재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두 번째 실천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경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허용·초대·환영함으로써 끊임없이 공간이 생산된다(최병두, 2018: 459~460). 그 결과 환대를 위한 장소를 전제로 하지만 장소적 특수성은 지양하는 것을 환대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무조건적인 환대는 무한히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것과 더불어 이방인을 배제하고 구속하는 법, 규칙, 제도 등의 생성 및 적용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환대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無)제도화를 전제해야 함과 동시에 보편적 윤리이지만 매순간 다르게 변형되는 ‘정의’를 준거삼아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인 의지의 발현으로서 관용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실천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개방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타자와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다면,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환대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환대는 ‘말놀음’에 그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무조건적인 ‘용서’는 무조건적 환대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새로운 세계로의 도래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의 해답이 된다. 이처럼 최병두의 이주 연구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주 현상에 대한 확장적 사고를 추구하며, 향후 포용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최병두 이주-공간 연구의 발전과 확장 가능성

앞선 절에서 최병두는 기존의 초국가적 이주 논의에서 빠져있던 (그러나 필수적인) 공간적 관점을 제시해왔음을 간략히 요약했다. 다문화공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현대의 공간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의 초국가적 이주와 공간 접목은 실증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왔다. 그렇지만 이주자들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 혹은 이주자들과 공간을 연계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 자체 혹은 다문화정책, 다문화 사회 등등에 대한 논의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최병두가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로 일부 사회학과 지리학에서 다문화공간이라는 용어가 제법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주자들의 거주지 분포 등의 개념으로 단순화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²⁾ 그럼에도 인정과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다문화 공간의 형성과 장소성, 다문화공간 내에서의 이주민들의 정체성 형성 등이 꾸준히 논해져오고 있는 것은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공윤경, 2013; 김영옥, 2010; 김태원, 2015; 예동근, 2011; 최병두 외, 2011).

전술한 바와 같이 최병두는 ‘다문화공간’ 이외에도 초국가적 이주와 공간의 접목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방법론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네트워크 집합체를 ‘아상블라주’의 개념을 덧붙여서 이해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로는 이주여성들이 형성하는 양 국가 사이에서의 네트워크와 자신들의 몸을 매개로 한 신체-공간의 재구성 논의(이희영, 2014), 이

2) 이와 같은 공간적 분포를 다문화공간으로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최병두도 인정했듯이 이주자들의 이주와 정착에는 지역적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곧 지역 간 및 지역 내 사회문화적 혹은 정치경제적 불균등을 의미한다. 다문화공간이 갖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민주적 정치의 이상으로부터 바라보면 이주자들의 지역적 차이와 공간적 분포 또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최병두가 제시한 다문화공간의 형성 배경과 해석한 다문화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주노동자 가정의 이주-정착-귀환 과정에 대한 연구(이민경, 2015), 이주 민선교센터에서 나타나는 이주자 공동체의 특성과 역할(이민경, 2016),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행위자-네트워크가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주는 역할(김연희·이교일, 2017) 등이 최근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들이 다중적이고 혼종적인 요소들의 집합체이며,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행위가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상학적인 유동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자칫 모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주공간 혹은 네트워크 공간의 개념을 공고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더 나아가 최병두는 관계적 관점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다문화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인정과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다문화공간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칸트와 데리다의 ‘환대’의 개념을 적용하여 환대의 공간을 새로이 제시했다. 이방인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주체는 이를 통해 주체의 내부화와 외부화를 연속적으로 겪게 되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간을 끊임없이 재생산 혹은 생산과 해체를 경험하게 된다. 즉, 환대의 공간은 정체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의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면서 역동적으로 재생산되는 곳을 의미한다. 데리다는 나와 다른 이방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을 베푸는 조건적 환대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나의 집까지 내줄 수 있는 무조건적 환대를 통해 극한의 개방성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윤리의 환대 혹은 이념의 환대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무한한 윤리성에 기반을 두어 추구해야 한다(강정희, 2018; 김종훈, 2016; 이병하, 2017). 최병두 역시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환대의 권리와 환대의 공간을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했지만, 과연 환대의 공간은 현실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일까? 환대는 초국가적 이주자에 대한 이상적이고 대안적인 하나의 규범으로 제시되었지만 현실에서 이주자는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에 따라 계층화되고 차별적

으로 받아들여진다. 환대의 현실적인 재구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주자로부터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글은 환대가 재구성되는 공간에 대한 연구의 출발지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환대는 이주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로, 본질적으로 공간과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환대는 사회 안에 있는 사람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김현경, 2015). 사람은 ‘현상 공간’인 사회에서 타인의 환대 속에서 사회적 성원권을 확인할 수 있다(아렌트, 1996).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현실에서 성원권을 확인받는 방법은 소위 다문화가정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가정에서 머느리,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가정을 구성하는 방식은 가족 구성원들에 의한 환대가 작동하는 방식이 되며, 환대의 공간이 현실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주여성들이 구성하는 다문화가정은 국가의 다문화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이주노동자나 유학생 등의 이주자들에 비해 이주여성의 안정화된 지위를 부여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의 초국가적 이주가 돌봄 노동과 사회 재생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저소득층의 젠더 및 계급적 전략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주여성의 가정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그녀들의 젠더 불평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Lan, 2008). 최병두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등장을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재구조화에 의한 불균등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바라보았다(최병두, 2012). 그러나 그의 관련 연구에서 젠더 관점은 나타나지 않으며 가정과 같은 특정한 공간이 재생산되는 과정과 방식에 대한 논의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계와 이상블라주로서의 초국가적 공간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켰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이주자들이 형성하는 실제의 공간의 배제를 초래했다. 다양한 이주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우위에 있지만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초국적 이주에서는 하

위에 위치하는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불균등한 젠더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그녀들의 가정은 어떻게 재생산될 수 있는가? 달리 말하면 가정을 기반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녀들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장소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3.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형성

가정은 지리학에서 꽤 오랫동안 주요 연구 주제이자 분석의 단위였지만, 1990년대 이후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에 의해 장소로 인식되고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많은 지리학자들은 집과 가정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변해했는지를 탐색해왔으며,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공간과 사회의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시도해왔다(발렌타인, 2009). 가정은 물질적 실천의 발생 장소,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사회관계의 교차지점, 사람들 사이의 치열한 접전이 나타나는 일차적 장소 등으로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Blunt, 2005). 또한 이주연구자들도 이주자들의 다양한 사회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가정을 모국과 이주국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바라보고 이의 구성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왔다(Ralph and Staeheli, 201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은 좀 더 복잡하다. 가정은 이주여성과 그녀들이 직접적으로 맺는 사회관계뿐 아니라 그녀가 관계 맺은 두 가족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사회관계까지 연결되는 구성물이다. 집은 최소한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만나고, 인식하고, 갈등을 겪으며, 동시에 차이를 협상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은 이주와 적응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점은 간과되고 그녀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재생산의 장소로만 인식되곤 한다. 이주여성들이 애초에 결혼적령기를 넘긴 남성들의 아내가 되기를 전제하고 이주하기에 가정에서의 사회재생산 역할이 당연함을 인정하더라도

왜 그리고 어떻게 그녀들이 사회재생산에 몰두하게 되는지는 단순하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59.5%이며, 이는 국민일반여성의 참여율인 49.9%보다 높은 수치이다(여성가족부, 2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결혼이주여성을 무조건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회재생산의 담당자 혹은 전업주부roman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결혼이주여성은 우리사회 특히 농어촌과 도시 취약계층의 사회재생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저개발국가로부터 ‘데려온’ 여성으로 인식되며 다른 이주민들에 비해 집 안에서 안락함과 안전함을 보장받는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과 마주치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기도 하고 저항 혹은 교섭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혼종적 문화와 생활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가정은 ‘억압의 공간’이자 ‘저항의 공간’이며, 억압과 저항의 교섭을 통한 ‘창조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김영주, 2009). 달리 말하면 권력 관계의 충돌지점이자 저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가정은 이주여성들과 가족들 사이의 많은 경계가 교차하면서 형성하는 ‘접경지대(borderlands)’이기도 하다(Anzaldúa, 1999). 경계지대에서 이주여성들은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사회-공간 정체성이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에서 부딪치는 이질적 문화를 능동적으로 해석해 수용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유하고 변형시키는 이주여성은 ‘문화번역가’로 재해석될 수 있다(김현미, 2010; 정현주, 2015).

가정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도착한 후 최초로 들어가게 되는 곳이자 정착과 적응을 경험하는 곳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기도 하다. 이주자로서 한국에서 최초로 경험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이주여성들은 가족 구성원과의 복잡한 권

력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 위한 각종 투쟁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상호 호혜적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개입 및 정책의 대상이 되어 가정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 주도의 다문화정책에 포섭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와 문화가 계승되기도 하고 이주여성의 고유 문화와 언어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이를 더 중시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정은 다문화주의와 이주여성 및 원주민들이 함께 재구성하는 현대의 공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부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 구성원과 함께 구성하는 경계지대로서 형성되는 다문화가정의 사례를 분석해, 현대의 현실적 적용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1)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필자들이 서울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³⁾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강사양성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이주여성 강사 40명과 개별적으로 면접한 사례와 수업참관을 통해 수집했다. 면접을 통해 집이 구성되는 과정을 인정과 투쟁의 공간과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공간의 두 방식으로 분석했다. 그 중 면접자 4명을 선정해 그들의 경험을 소개한다. 아래 본문에 나오는 사례들은 해당 면접자들의 담화를 통해 필자들이 재구성한 것이다. 면접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아래 본문에서 출처 없이 표기된 인용문들은 해당 면접자들과의 심층면접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묻기

3)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요청으로 그 위치와 센터명을 밝히지 않는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번호	출신국	연령	결혼 기간	결혼 경로	학력	가족 관계	
						본국	한국(동거)
1	베트남	25	6년	중개업체	고졸	부모, 여동생1, 남동생1	남편, 딸1
2	베트남	28	9년	중개업체	고졸	부모, 여동생1	남편, 딸, 시모
3	중국	32	9년	유학	대졸	부모	남편, 아들1
4	필리핀	44	20년	연애	대졸	부모, 남동생2, 여동생1	남편, 딸2

위해 심층면접을 수행할 때마다 동일하게 “한국인의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⁴⁾ 동시에 참여자들은 이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에서 제일 벅차다고도 언급했다. 아침 식사로 매식을 많이 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식 밥과 국, 반찬을 매 끼마다 잘 차려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이의 학업에 신경 쓰고 좀 더 좋은 학용품이나 옷가지를 사줘야 하고 동시에 다문화가정 아이로 낙인을 받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장 힘들다고 한다.⁵⁾

식사의 중요성은 비단 아침식사 준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기존

4) 결혼이주여성이 갖는 식사 준비의 중요성은 김현미(2010)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5) 이와 같은 점은 기존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보통 이주여성의 어려움 혹은 스트레스로 가족으로부터 받는 무시, 지원 서비스의 부족함, 이주자로서 살아가는 감정적 어려움, 이상과 현실과의 큰 괴리, 경제적 궁핍함, 폭력, 육아 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김민정, 2006; 김희경, 2010).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다문화정책을 비롯하여 각종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예전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가 농어촌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이주여성들은 이주 이후 한국 사회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채로 한국음식 먹기를 강요받고 이것이 적응을 빨리 하는 방법이라 설득 당한다(김영주, 2009; 김정현, 2015; 문옥표, 2012; 한윤희 외, 2011). 국적 혹은 지역에 따른 식문화,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개인의 취향 및 성격 등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이 한국 가정에 정착해 생활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음식 먹기의 실천은 점차 달라진다(최병두, 2017).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주여성에 부과된 일이며 특히 시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신이 내키는 대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음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약이 생긴다. 최병두는 이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해 음식을 매개로 한 이주여성들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방식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음식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집에서 그녀들이 수행하는 모든 일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동시에 가족 구성원과의 차이의 이해, 인정 및 협상의 대상이 되며, 이 과정은 곧 그녀들이 자신들의 다문화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주자들의 초국적 네트워크는 모국과 정착국의 국경을 가로 지르면서 유지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보통 이주민들은 송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사회적 교류,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만남, 가족 초청⁶⁷⁾ 등의 방법으로 한국과 모국과의 물리적 경계

6) 친정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주자들은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 방문 동거 비자(F-1)’를 발급받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부모 초청 비자 자격은 ‘손주가 4세 미만·양육 목적 최대 4년 10개월까지’이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외국인 가족은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 관광 비자(C-3)로만 입국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지원 연령(만 5세)에 맞춘 것이며, 장기 체류로 인한 국내 귀화 등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친정 부모 초청은 친정 방문 프로그램과 더불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이주여성 관련 복지 센터 등에서 많이 지원하는 형태이다.

7) Hwang(2016)의 연구에 의하면 475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47.4%의 여성이 친정 가족으로부터 산후조리 도움을 받았고 50.2%의 여성이 마찬가지로 육아를 친정

를 뛰어넘는다. 이와 같은 초국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이주자와 가족 사이의 정서적 혹은 경제적 지지에 지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초국적 돌봄 노동이 과생됨을 의미한다(Hwang, 2016; Lie, 2010; Zhou, 2012; Zhou, 2013a; Zhou, 2013b). 관련 연구자들은 중국에서 서구권으로 이주를 한 중국인들이 모국에 남아 있는 노부모의 부양과 이주국에서 발생하는 육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를 초청하는 현상을 ‘돌봄 교환’이라 지칭했다. 이는 또한 가족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가구(global householding)’의 등장이기도 하다(Douglass, 2006; 2012).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 역시 산후 조리나 육아를 위해 친정의 부모 특히 엄마를 초청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했다. 이와 같이 이주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 재생산 임무를 위해 다른 여성을 이주시키는 일은 이주의 여성화가 연쇄 이주와 접목되어 확대되는 과정이자 글로벌 수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확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을 통해 형성된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이주 여성의 가정 내 위치를 상승시키기도 하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일부를 강화 혹은 배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주여성의 가정은 초기의 남편이나 시가족으로부터 형성되었던 불균등한 젠더 및 권력 관계를 역전시키기도 하며 재구성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접경시대와 초국가적 네트워크 논의를 토대로 한 다문화가정의 형성은 다음과 같다.

2) 접경시대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가 실현되는 다문화가정

한국에 온 지 6년이 되는 베트남 출신의 연구 참여자 #1은 시집 온 둘째 날 아침부터 시어머니로부터 식사를 준비하라는 말과 함께 만들

가족의 방문으로 도움 받았다고 한다.

수 있는 한국 음식이 있냐는 질문을 들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국 음식이 없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매우 실망하며 “앞으로 가르칠 일이 매우 많겠다며 못마땅해 했다”고 참여자 #1은 기억했다. 어릴 때부터 바쁜 친정부모를 대신해 가족들의 식사를 담당해온 참여자는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 것이지 음식 자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음식만을 먹게 하고 만들게 하는 강압적인 가족 내 분위기와 가족 구성원 중 자신만이(이주 초기에는 시부모와 남편, 시누이가 함께 살았다) 식사를 담당해야 하는 가족 간의 관계가 싫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음식을 해보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해보았지만 외국 음식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시부모는 이를 ‘단번에 거절’했고, 가끔 가족들이 집에 없거나, 혼자 먹을 음식으로 아주 조금 준비해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이주 이후 약 1년 후에 발생한 그녀의 임신과 시누이의 적극적인 동조이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한국 음식만을 먹고 만들게 하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시누이에게 베트남식 쌀국수를 집에서 해주겠다고 먼저 말을 했고, 쌀국수를 종종 밖에서 사먹던 시누이는 “진짜 베트남 쌀국수를 집에서 해먹을 수 있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서울이라는 도시문화적 배경 속에서 젊은 세대에게 베트남 음식이 대중화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를 접해보지 못했던 시부모는 탐탁지 않았다. 그러나 딸의 적극성에 못 이겨 쌀국수를 처음으로 먹게 되었고, 이는 베트남 음식에 대한 좋은 첫인상이었다고 한다. 이후 참여자 #1은 가정 내에서 시도하는 베트남 음식의 종류를 늘렸고 특히 이듬해 태어난 딸이 커가면서 베트남 음식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식탁에서 베트남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한다. 2년 전부터 시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부부와 딸만의 가정을 차린 그녀는 이제 “집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즐겁고 보람찬 일이 식사 준비”이며,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라져서 “한국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즐겁다”고 말했다.

참여자 #1은 시어머니로부터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지역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요리 관련 프로그램의 도움도 매우 컸다고 언급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거나 집에만 있기 따분해서 다녔던 센터이지만, 그곳에서 각종 전통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집에서 복습하는 과정을 가족들이 매우 좋아했으며, 자신이 한국 음식 만들기를 비롯해 다른 집안일에 몰두할수록 가족들이 베트남과 친정에 더 신경을 쓰며 자신에게 보상이 주어졌다고 회상했다. ‘힘들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는’ 집안일을 열심히 할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므로 이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주변의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집이 친정과의 교류가 잦으며, 가족들이 베트남과 다문화사회에 갖는 관심이 큰, “진짜” 다문화가정이라 자부한다. 실제로 참여자 #1은 딸과 베트남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녀의 가족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베트남의 친정을 방문하고 휴가를 보내고(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 베트남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1이 자신의 차별적 정체성을 임신이라는 계기로 표출했고, 음식을 통해 이질적 문화적 차이를 협상하여 자신의 다문화가정을 재구성했다면, 연구 참여자 #2는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가족들에게 제대로 드러내고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을 만들어나간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지 9년이 지난 이 참여자는 결혼 초반부터 집안일을 강요받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과 비슷하다. 그녀는 자신에게만 부과되는 집안일의 부담을 건기기 힘들어했는데, 이는 노동 강도나 노동의 양의 문제라기보다 자신만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사회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베트남은 아침은 주로 매식을 하고 다른 집안일들과 저녁 식사 준비도 가족 구성원들과의 분담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

인데 결혼 이후에는 오직 그녀만이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분담하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시어머니는 이에 대해 굉장히 분노했으며, “못사는 나라에서 돈 주고 사온 며느리”가 제값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못사는 나라로부터 이렇게 풍족한 집으로 돈까지 주고 왔으니 그녀의 가족과 베트남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덧붙여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대가이며, 만약 집안일을 하기 싫으면 결혼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내놓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여자 #2는 집안일을 의무로 여기고 전담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선택은 결코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친정 가족과 베트남을 무시하는 가족, 특히 시어머니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결혼을 정당화해 딸의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참여자가 한 선택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러운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다.⁸⁾ 그녀의 외모와 옷차림은 최신 한국 여성들의 유행을 따르고 있고 한국어 구사 능력도 매우 뛰어나서 이주민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본인의 이름을 소개할 때도 한국식으로 개명한 이름을 사용했다. 이주 초기에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집 안에만 머물렀던 그녀는 한국 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위해 과감하게 자신을 집 밖으로 노출시켰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이외에도 지역 내 사회복지센터의 프로그램도 많이 이수해 자격증과 수료증도 여러 개 갖고 있었다.

8) 이주여성들이 이주국의 전통을 내국인보다도 훨씬 충실하게 따르면서 그 나라의 문화의 습성을 체득함으로써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Faier(2009)를 참조할 것.

시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아침 식사로 빵이나 시리얼이 아닌 완전한 밥, 국, 반찬을 차려내며, 베트남식 요리는 거의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배운 방법을 통해 된장을 직접 담글 정도로 한국 음식을 잘한다. 참여자 #1이 아이에게 베트남어를 같이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참여자 #2는 딸에게 베트남어를 거의 쓰지 않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초등학생인 딸의 학업을 옆에서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언급한 그녀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에 있다.

위에서 소개한 두 참여자의 가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며, 그들의 가정은 다문화정책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가 충분히 활용되는 곳이다. 또한 두 여성은 집안일에 매우 헌신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또래의 한국 여성보다도 훨씬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인스러운 행위를 통해 가정 내 사회재생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두 여성 모두 자신의 가정 내 가족들에게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수단으로 집안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참여자 #1은 비록 초기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다문화공간으로서 자신의 집 내부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이(시누이)를 포섭해 전략적으로 차이와 다양성을 보여주고 이를 인정받게 된 경우이다. 그녀의 가정에서 이제 베트남과 관련된 것에 대해 이질감이나 거부감은 거의 없으며, 그녀의 남편은 은퇴 후 베트남 이민을 고려할 만큼 베트남에 우호적이다. 반면 참여자 #2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가져오는 차이가 무시와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를 지우려 한다.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참여자 #1이 참여자 #2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거나 다문화화를 실현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다문화의 실현 시기(서로 다른 두 문화가 이상적으로 조화되는 시기)는 각각 다르다. 두 여성 모두 가정에 헌신적인 아내이자 엄마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권력 관계와 협상지점은 다르다. 참여자 #1은 한국의 가족이 강제하는 통합의 조건에 저항해 정체성의 협상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자신의 문화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신의 가정을 현재의 이상적인 다문화가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수한 그녀는 다문화가족정책이 생애주기에 따라 제안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다음 단계, 즉 경제활동참가자가 될 생각은 없다. 집안일에 헌신하는 전업주부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만족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참여자 #2는 베트남인으로서 자신의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인되기’를 실천한다. 이는 가족 내에서 형성된 권력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장기 계획과 자신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좀 더 큰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통한 다문화가정의 형성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자격증과 학위 취득을 통해서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그녀는 독립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이 가정 내에서 겪은 심리적 고립과 불편함, 불평등 등을 센터와 학교에서 다른 이주여성들과 서로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미래의 초국가적 실천과 다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자신의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 비록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베트남 출신의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우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미래가 자신의 차이를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교사가 되는 미래에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가 잘 조화되는 다문화가정”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참여자가 인식하는 가정은 현재와 미래라는 다른 시점에서 다문화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이때의 다문화는 서구에서 발전해온 철학적·정치적·사회적 이론과는 거리가 먼 정부 주도의 동화주의의 전략이다.

즉, 이들의 다문화가정은 한국적 다문화주의가 체현된 장소이다. 다음 절에서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공간으로서의 다문화가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의 또 다른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이중 언어가 사용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공간으로서의 다문화가정

참여자 #3은 한국 유학 도중에 만난 남편과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국제 무역을 전공했던 그녀는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과 신생아 육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어머니를 초청했다. 남편은 전라도 광주 근처에서 거주하는 시모에게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무래도 시모는 불편하기 때문에 친정 엄마를 초청한 것이다. 출산을 앞두고 들어온 친정어머니는 참여자의 출산과 갓 태어난 아들의 육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출산 6개월 후, 그녀는 다니던 회사로 복귀했고, 자연스레 아들의 육아는 친정어머니가 전담하게 되었다. 회사로의 이 큰 복귀에 대해 묻자 참여자는 육아를 담당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육아를 맡아주는 엄마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약 4년간의 육아 후, 친정어머니의 비자가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간 후, 그녀는 지속적으로 방학 때마다 아들과 함께 친정을 방문한다(남편은 동행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비록 본인은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아들을 친정 부모에게 맡겨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말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친정아버지를 초청해 더욱 밀도 있는 중국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방과 후 돌봄을 맡길 계획이라 했다.

방학 때마다 중국의 친정을 방문하는 참여자 #3은 자신의 집을 딱

히 중국과 한국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반면 시모의 집은 1년에 한 번도 잘 방문하지 않는데 대신 시모가 명절이나 가족의 행사가 있으면 자신의 집으로 온다고 한다. 따라서 시모나 시택에 대해서 느끼는 유대감은 발달해 있지 않으며, 반면 자주 방문하는 친정과는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집이 “(시설적으로) 더 편하니깐 빨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하지만 ... 그래도 중국이 마음은 더 편하고 아들도 엄마가 봐주니까 ...” 더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다. 유학시절까지 포함하면 한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그녀는 한국 생활의 편리함에 익숙해졌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지만 스스로를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니라고 여긴다. 한국이 좋지만 싫기도 한 그녀는 귀화를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녀는 스스로를 “다문화”가 아닌 “초국적”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녀가 처음부터 ‘다문화’를 싫어한 것은 아니다. 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을 유학시절부터 본 그녀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의 일부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문화라는 말을 거부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들이 어린이집과 학교를 다닌 이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동화주의 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주 여성과 그들의 자녀에게 다문화인으로서의 낙인을 찍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를 거부하게 되었다. 자신이 다른 결혼이주여성과는 달리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한국 실정에 매우 밝음에도 자신의 아들은 ‘다문화가정’의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로 인식되었고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들을 사회의 이러한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가 커가면서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자신이 가르치는 것보다 사교육을 통한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당연히 회사에 나가 돈을

별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자신이 회사에 다니니까 아무래도 가정교육이나 아들의 학교생활에서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쓸 수 없지만 이는 ‘돈 버는 엄마’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곧 친정아버지를 초청하니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점은 다문화정책에 의한 동화주의적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에도, 다문화정책에서 종종 이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중 언어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아들에게 중국어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려 노력한다는 점이다. 친정어머니가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 처음에는 중국 방문을 정기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에게 씌워진 “다문화적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중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동시에 남편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자신은 중국어를 말하며, 아들은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고 전했다.

참여자 #3의 다문화가정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친정어머니를 불러들이면서 한국과 중국을 연계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친정어머니가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로 일시적으로 네트워크가 약화된 것 같았지만, 정기적으로 아이와 함께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를 안정화시켰다. 한국식 다문화주의가 초래하는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피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벌게 된 그녀는 가정 내에서 양육을 용이하게 하고 아들의 “초국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이중 언어의 습득을 통해 “세계화에 걸맞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켰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호명과 정부의 동화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의 재현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와 차별을 경험한 참여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중 언어가 사용되는 초국가적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그녀의 가정은 돌봄 교환할 수도, 돌봄의 연쇄 이주 장소일 수도 있으나,⁹⁾ 이와 동시에 예

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형식으로 형성되는 초국가적 가족의 기 획이기도 하다.

참여자 #3이 한국의 다문화주의로부터 초래된 이주자의 부정적 이 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초국가적 네트워크 공간인 다문화가정을 구성 했다면, 연구 참여자 #4는 이주자로서의 자원과 배경, 차이점을 긍정 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참여자 #4는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영어 강사로 들어왔다가 같은 강사 이자 번역가인 남편을 만나서 연애 후 결혼을 했다. 보통의 이주 여성 들이 결혼과 동시에 한국어를 사용할 것을 거의 강요받는 것에 비해 자신은 그럴 필요도 없었고 가족들도 한국어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결혼 이후 두 딸을 낳았을 때도 한국어를 잘 몰랐으며, 생활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진 못했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조기 영어교육 열풍이 부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두 딸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서 좋겠다며 부러워했다고 회상한다. 이후 한국에 거주한 시간이 오래되고 두 딸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국어 배웠다. 이제는 자신은 가정에서 한국어를 쓰고 남편은 영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두 딸은 상황에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문화’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였지만 이중 언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다문화가정’이었던” 셈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참여자 #4는 결혼 전부터 필리핀의 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 왔다. 부모의 경제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동생이 셋이나 있어서 경제적 원조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어 강사

9) 돌봄의 연쇄 이주는 이주여성의 이주국 가정에서 생겨나는 가사와 육아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여성이 이주해오는 경우를 지칭한다. 특히 선진국의 가정으로 고용된 여성의 모국에서의 집안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이 동원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Hochschild, 2000; Parreñas, 2001; Sassen, 2000).

와 번역일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한 그녀는 친정으로의 송금을 계속했다. 한편 그녀가 한창 일을 할 때 두 딸의 양육은 근처에서 사는 시모가 담당했는데, 그 대가로 매달 돈을 드렸다. 시어머니는 참여자의 두 딸을 돌보는 동시에 사업 실패에 따른 많은 카드빚과 대출로 인해 이혼한 남편의 형, 즉 아주버님의 아들도 함께 참여자의 가정에서 돌보았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두 딸을 아주버님의 아들과 함께 돌보는 상황이 못마땅했지만 아이들의 한국어-영어 교환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시어머니가 설득했다. 그녀는 아주버님의 아들과 자신의 가족이 가깝게 연결되는 것은 괜찮지만, 아주버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자주 연락해오기에 남편과 종종 싸운다고 말했다.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아주버님에게 돈을 주면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몇 번 있을 정도이며, 명절이나 가족행사 때 가끔 아주버님을 만나지만 되도록 보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참여자와 가족은 필리핀을 2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 굳이 갈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전한다. 친정 부모에게는 송금을 통해 기여하고 있고, 가끔 고국이 그리운 하지만 한국의 가족들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틈이 생기면, 필리핀보다는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딸이 내년엔 대학을 가고, 둘째딸도 곧 대학을 가게 되면 시모와 함께 필리핀에 가서 살 계획을 갖고 있다. 부부의 언어적 배경이면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생활비도 적게 나갈 것이며 숙박업을 하게 되면 노후의 수입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필리핀을 자주 오가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 #4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취직을 통해 형성되었고, 참여자 #3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통해 확대되었다. 친정을 자주 방문하진 않지만 부모에게 보내는 정기적 송금은 그녀와 필리핀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이다. 그녀의 네트워크는 오히려 시대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모와 아주버님, 시조카가 그녀의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재구성되었다. 시모와는 두 딸의 양육과 시조카의 양육을 경제적 보상으로 교환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강화시켰고, 시아주버님과과의 연계는 남편과의 관계를 위협하게 만들기에 최대한 배제하려고 한다. 즉 한국에서의 가족들-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 #4의 가정에서 그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어라는 언어적 자산과 이로부터 비롯된 높은 경제적 수입이다.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을 갖고 있었던 그녀는 보통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가족으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거의 받지 않았으며, 한국어 사용에 대한 강압도 없었다. 오히려 딸들과 시조카의 교육을 위해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유를 받을 정도였다. 그녀의 말처럼 다문화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에도 그녀의 가정은 이중언어가 사용되는 장소였고, 그녀의 이러한 언어적 배경은 높은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어 가족 내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즉, 언어적 배경과 능력을 활용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참여자 #4는 이제 미래와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기획을 시도해 자신과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사업 수단으로서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한다.

두 참여자의 다문화가정은 이중언어가 사용되는 장소이자 이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형성된다. 앞선 참여자 #1, #2의 경우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체현되는 장소로서의 다문화가정과는 달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참여자들의 고국 언어와 문화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아 이들 가정의 하나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 위치한다.

4. 나가면서: 현대의 공간을 위해

이 연구는 국내에서 초국가적 이주와 이주민에 관한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주와 공간을 연계시켜 이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해온 최병두의 업적을 간략히 요약 및 정리했으며, 그 중 인정·투쟁으로서의 다문화공간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자의 이주 과정과 정착 과정은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와 같은 변화들은 글로벌 스케일에서부터 로컬 및 미시적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나 법 등의 재구성을 통해 다중스케일에 걸쳐지는 ‘다문화공간’을 형성한다. 그러나 다문화공간은 이주자들의 이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끊임없는 인정과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공간을 원주민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인정의 시작점이자 평등과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대변되는 다문화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주민들이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형성하는 다양한 관계 또한 공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위상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이주자를 포함한 인간뿐 아니라 이들을 에워싼 사물이나 제도, 법규 등이 행위자 혹은 행위소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로 형성된다. 이러한 행위자-네트워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규정되면서 이상블라주라는 결합체를 구성하게 된다. 행위자와 네트워크의 연계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은 물리적이지만 동시에 위상적이므로 특정한 공간 구분 혹은 스케일 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 즉,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기반을 둔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위상적 공간은 이주의 이해에 있어 기존 연구가 가졌던 한계들 —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개인 혹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 지구적 이주의 배경 등 — 을 극복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다문화’에 의해 역설적으로 주변화되고 있고, 인정과 관용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원만하

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지구·지방적 시민성이다. 이는 이주자가 갖고 있는 차이를 이해하거나 그가 가진 특정 부분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타자·지향적 윤리로서의 환대를 지향함으로써 함양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병두의 이주 연구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 연구의 확장성을 위해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적용 가능성에도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대부분의 이주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으로 적합하다고 여겨져 왔다. 최병두 본인 역시 거주지인 대구를 포함해 일본, 유럽 등의 사례를 통해 이주 연구의 현실화에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이주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공간의 기저에 담겨 있는 하비의 관계적 공간의 개념에서부터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칸트, 데리다의 환대 개념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의 연구 영역은 다채롭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주 문제에서 당사자로서의 ‘이주자’의 능동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이주자들을 구속하는 제도와 정책 등의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었다면, 최병두의 연구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재분배의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이주자 개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했다. 일본의 사례 연구(최병두, 2011)에서 최병두는 이주자의 지구·지방적 정체성은 네트워크화, 다규모화된 요소들이 조화 혹은 갈등을 야기하면서 대안적 정체성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체성 논의 속에서도 그는 이주자 집단이 추구하는 지방적 정체성의 진보성, 진보 정치가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의사소통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주체로서의 이

주자의 전복 가능성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며, 그들의 작은 성취가 촘촘한 지구-지방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최병두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마지막으로, 이주 연구의 공간적 측면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최병두의 학문적 기여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주를 포함한 연구의 전 영역에 있어, 공간에 대한 집요한 추적은 최병두에게 있어 하비로부터 받은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간에 대한 철학 그 자체가 하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공간에 대한 개념화의 문제(Harvey, 1982), 사과의 근본적인 질서로서 공간의 속성(Harvey, 2009) 등의 논의 등이 이주 연구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사회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따라서 하나의 공간으로서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이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다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주 연구뿐만 아니라 최병두가 전념해온 모든 연구 분야에서 ‘공간’을 강조한 것은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문제의 해결 역시 ‘공간’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강력한 신념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최병두가 제시한 이주-공간의 연계는 그동안 그 자신을 포함한 여러 후속 연구에 의해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되고 구체화되어왔다. 이주에 있어 공간의 중요성을 여러 방면으로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젠더 관계에 대한 고찰이 미비한 점과 행위자와 네트워크에 의한 위상학적 공간을 강조한 나머지 물리적 장소에 기반을 둔 공간의 형성 혹은 위상학적 공간의 배경이 되는 특정 장소의 장소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이 재구성되는 방식과 그 의미를 분석해 환대의 현실적 재구성 및 적용을 시도해보았다. 사회 안에서 타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로서의 환대는 이주자가 성원권을 확인받는 방식이 된다. 이에 다문화가정 속에서 며느리,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주여성이 자신의 가정을 구성하는 방식을 해석해보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동화주의에 기초한 한국적 다문화주의가 실현되는 곳으로서의 다문화가정을 구성하기도 했고, 이중 언어가 사용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공간으로서의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기도 했다. 관용을 넘어서서 타자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적 환대의 개념이 현실화되긴 어렵지만, 다문화가정 내에서 이주여성이 자신의 가정을 구성하는 방식은 환대의 경계지점이 지속해서 재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6년에 방영된 EBS <다문화 고부 열전>¹⁰⁾이라는 TV 프로그램은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며느리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의 곤란한 사연을 통해 가정에서의 환대의 윤리와 환대의 공간이 실현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캄보디아 출신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한국에 일을 하기 위해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이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지낼 곳이 없어진 사돈을 자신들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나 사돈은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일하러 나가면 옷통을 벗고 거실 한 가운데에서 TV를 계속 시청한다. 남사스러운 광경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질 못하며, 이를 견디지 못한 딸은 심지어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고 짐까지 싸서 나갔다.

이 사례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환대는 어렵다는 것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방인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호의를 베풀더라도 주체의 공간 안에서 환대를 받는 이방인의 태도는 예측할 수 없다. 처음에는 좋

10) <시어머니와 친정아버지 사이에서 불편한 며느리>(http://www.ebs.co.kr/tv/show?prodId=110028&lectId=10549821, 2016년 8월 4일 방영).

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으나 호의를 제공하는 자의 기대에 어긋나면 — 즉, 자신에게 제공된 환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것 이상을 요청하게 되면 — 환대 주체는 나의 것을 나누어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하고 배은망덕하다는 말로 환대를 접기도 한다. 유럽 등지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과격한 성향의 소수 이민자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자를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푸는 환대는 때론 주체의 공간과 삶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대의 불확실성과 비현실성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환대가 현실에서 시도되고 재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방인, 그들과의 차이,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모르기에 우리의 호의의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시키고 때로는 없애기도 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 것이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겠지만 이러한 진통을 통해 환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정은 이방인에 대한 환대가 재구성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사회와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다채로운 영역”인 가정은 초국가적 이주와 공간의 접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이기도 하다(Domosh, 1998: 281). 이 연구는 최병두가 제시해온 이주-공간 연구의 함의를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에 적용해 초국가적 이주에서부터 지구·지방적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 공간의 가능성을 해석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을 넘어서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주-공간의 논의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원고접수일: 2018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1일

계재확정일: 2018년 12월 14일

최종원고접수일: 2018년 12월 17일

❖ Abstract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pace from Multicultural Family Cases:
Choi Byung-Doo's Immigration Research

Paek, Yilsoon · Koh, Minkyung

This study summarizes Byungdo Choi's immigration research to examine his theoretical features and applies his implication to a case study. Since the early 2000s, he has studied immigration research,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space' as the space of glocalization. Next, deploying on the actor-network theory, he has analyzed how multicultural spaces are constantly re/constructed by various actors and their networks. Finally, he suggested the geography of hospitality as an essential condition for glocal citizens who provide hospitality for human beings. Inspired by his works, this study attempts to reinterpret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homes as a multicultural space. By doing so, this study explores home as a potential space of hospitality where it is not possible in reality, in turn, suggests home as a basic space where the glocal citizenship can be cultivated.

Keywords: immigration, multicultural space, actor-network theory(ANT),
hospitality, marriage migrant women

참고문헌

장정희. 2018. 『환대의 윤리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정책과 한국 교회의 과제』. 《신학과 사회》, 32권 3호, 73~108쪽.

공윤경. 2013.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차별화』. 《한국민족문화》, 48권, 183~214쪽.

김연희·이교일. 2017. 『초국적 삶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전환경험과 미디어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 《아시아여성연구》, 56권 1호, 107~153쪽.

김영옥. 2010.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4권, 31~64쪽.

김영주. 2009. 『음식으로 본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적응 전략』. 《농촌사회》, 19권 1호, 121~160쪽.

김정현. 2015. 『도시형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식생활행태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권 4호, 173~189쪽.

김중훈. 2016. 『관용을 넘어 정의로: 데리다의 ‘환대(hospitality)’의 철학에 비추어 본 다문화 사회』. 《다문화교육연구》, 9권 4호, 119~137쪽.

김태원. 2015. 『다문화 공간과 결혼이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탐색』. 《인문사회 21》, 6권 3호, 527~548쪽.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김현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 문화 접경시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비교한국학》, 18권 3호, 145~174쪽.

김희경. 2010.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유형분석』. 《여성연구》, 78권 1호, 119~158쪽.

문옥표. 2012. 『한국인의 식생활 속의 다문화 실천: 국제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5권 2호, 109~148쪽.

발렌타인, 질(Gill Valentine). 2009.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사회지리학으로의 초대』. 박경환 옮김. 한울 아카데미.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201》, 10권 2호, 41~76쪽.

아렌트, 한나(Hannah Arendt). 1996.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예동근. 2011. 『한국의 지역 다문화공간에 대한 비판적 접근』. 《동북아 문화연구》, 27권, 5~14쪽.

이민경. 2015. 『노동-유학-자녀교육의 동맹』. 《교육문제연구》, 28권 2호, 85~109쪽.

_____. 2016. 『이주-정착-귀환의 행위자 네트워크』. 《다문화콘텐츠연구》, 22권, 223~264쪽.

- 이병하. 2017. 『환대 개념과 이민정책: 이론적 모색』. 《문화와 정치》, 4권 2호, 47~72쪽.
- 이재용. 2017. 「구성되는 관계에 대한 이해, ANT에 대한 길라잡이: 번역과 동맹(최병두 외. 2017. 푸른길) 서평을 대신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7권 2호, 140~149쪽.
- 이희영. 2014. 「결혼-관광-유학의 동맹과 신체-공간의 재구성」. 《경제와사회》, 102호, 110~148쪽.
- 정현주. 2015.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지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50권 3호, 289~303쪽.
- 최금혜. 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권 1호, 143~188쪽.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권 5호, 635~654쪽.
- _____. 2011. 『다문화 공생 일본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 푸른길.
- _____. 2012. 「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47권 1호, 13~36쪽.
- _____. 2017. 「초국적 결혼이주가정의 음식: 네트워크와 경계 넘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권 10호, 1~22쪽.
- _____. 2018. 『초국적 이주와 환대의 지리학』. 푸른길.
- 최병두·안영진·박배균·임석희. 2011.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 최병두·김연희·이희영·이민경. 2017. 『번역과 동맹: 초국적 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와 사회공간적 전환』. 푸른길.
- 하비, 데이비드(David Harvey). 1982. 『사회 정의와 도시』. 최병두 옮김. 종로서적.
- 한윤희·신원선·김지나. 2011.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 식생활 적응요인 및 식행동 연구」. 《비교한국학》, 19권 1호, 115~159쪽.
- 홍태영. 2011. 「이주자의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 《다문화사회연구》, 4권 2호, 5~34쪽.

Anzaldúa, G. 1981. "Speaking in tongues: a letter to 3rd world women writers." in C. Moraga and G. Anzaldúa(eds.). *This Bridge Called My Back: Writings by Radical Women of Color*. London: Persephone, pp. 165~174.

Blunt, A. 2005. "Cultural geography: cultural geographies of hom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4), pp. 505~515.

Domosh, M. 1998. "Geography and gender: home, agai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2), pp. 276~282.

- Douglass, M. 2006. "Global householding in pacific Asia."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view*, 28(4), pp. 421~446.
- _____. 2012. "Global householding and social reproduction: migration research, dynamics and public policy in East and Southeast Asia." Asia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No. 188, August 2012, http://www.ari.nus.edu.sg/wps/wps12_188.pdf.
- Faier, L. 2009. *Intimate Encounters: Filipina Women and the Remaking of Rural Japan*. Oakland,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rvey, D. 2009. *Cosmopolitanism and the Geographies of Freedo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A. R. 2000. "Global care chains and emotional surplus value." in W. Hutton and A. Giddens(eds). *On The Edge: Living with Global Capitalism*. London: Jonathan Cape, pp. 130~146.
- Hwang, J. M. 2016. "Cross-border marriages and transnational family networks for care: a study of marriage-migrant women in Korea." *PNU Journal of Women's Studies*, 26(2), pp. 195~226.
- Lan, P. C. 2008. "New global politics of reproductive labor: Gendered labor and marriage migration." *Sociology Compass*, 2(6), pp. 1801~1815.
- Lie, M. L. 2010. "Across the oceans: childcare and grandparenting in UK Chinese and Bangladeshi household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9), pp. 1425~1443.
- Ralph, D. and L. A. Staeheli. 2011. "Home and migration: mobilities, belongings and identities." *Geography Compass*, 5(7), pp. 517~530.
- 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Page Mill Roa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ssen, S. 2000. "Women's burden: counter-geographies of globalization and the feminization of survival."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3(2), pp. 503~524.
- Zhou, Y. R. 2012. "Space, time, and self: rethinking aging in the contexts of im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Journal of Aging Studies*, 26(3), pp. 232~242.
- _____. 2013a. "Transnational aging: the impacts of adult children's immigration on their parents' later lives." *Transnational Social Review*, 3(1), pp. 49~64.
- _____. 2013b. "Toward transnational care interdependence: rethink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 immigration and social policy." *Global Social Policy*, 13(3), pp. 280~298.